



예거 르쿨트르,

제 1 회 워치스 & 원더스 상하이 참가 발표

예거 르쿨트르는 상하이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워치스 & 원더스(Watches & Wonders) 박람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초대를 통해서만 참가할 수 있는 이번 행사는 2020년 9월 9일부터 13일까지, 상하이의 예술 및 디자인 허브인 웨스트 번드 아트 센터(West Bund Art Center)에서 열립니다.

4월 말 watchesandwonders.com 을 통해 2020년 컬렉션을 디지털로 선보인 이후 열리는 이번 상하이 박람회는 미디어와 유통 업체, 고객들을 초청하여 예거 르쿨트르의 최신 타임피스를 직접 만나볼 수 있는 첫 번째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랑 메종은 올해 6월 사운드 메이커 테마(The Sound Maker™)를 선보인 바 있습니다. 워치메이킹 사운드의 예술을 예찬하는 사운드 메이커™는 차임 시계 분야에 대한 예거 르쿨트르만의 풍부한 과거와 현재, 미래의 유산을 탐구할 뿐만 아니라, 1833년부터 메종의 본고장으로 자리 잡은 발레 드 주의 자연의 소리에 경의를 표합니다.

게스트들은 최신 차임 시계와 예거 르쿨트르 헤리티지 컬렉션의 대표적인 타임피스 셀렉션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Jaeger-LeCoultre: HOME OF FINE WATCHMAKING SINCE 1833

고요하고 평온한 발레 드 주에 위치한 예거 르쿨트르의 메종에서는 구성원들 사이의 특별한 소속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곳은 구성원들이 쥐라 산맥의 뛰어난 경관에서 영감을 얻어 그들의 끝없는 내면의 열정을 펼쳐보일 수 있는 곳입니다. 매뉴팩처의 한 지붕 아래에서는 워치메이커, 엔지니어, 디자이너, 그리고 공예장인들이 하나의 워치를 완성시키는 작업을 함께합니다. 모든 구성원은 워치메이킹을 향한 에너지와 협동 발명 정신에 힘입어 절제된 세련미와 기술적 창의성을 키워갑니다. 이러한 정신은 1833년 이래 1,200개 이상의 칼리버를 발명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고, 예거 르쿨트르를 가장 뛰어난 워치메이커로 만들었습니다.
